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Programs of Human Right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Focused on Directo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in Gyeonggi-do, Gyeongsangbuk-do, Jeollanam-do

김선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Sunjo Kim(sjoo88@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경북, 전남지역 시설장 114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인식 수준과 실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거주시설 인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시설 인권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 수준의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수립하고자 IPA matrix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장애인거주시설 | 인권 | IPA matrix 방법 | 인권 인식수준 |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search for action strategy making it possible to compare and overcome a gap between the awareness of importance and the present performance of human right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To this end, an empirical study was made on how high the level of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e level of performance was and whether there was gap between the awareness of importance and the present performance for 114 directors in Gyeonggi, Gyeongbuk and Jeonnam provinc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y shared the perception that human rights in residential care home were important. Second,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ap analysis between the level of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human rights area in residential care home. Third,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IPA matrix were presented in order to establish an action strategy making it possible to overcome a gap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topics were presented.

■ keyword : |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 Human Rights | IPA Matrix Method | The Level of Awareness of Human Rights |

1. 서론

2014년 일명 엽전노예사건으로 장애인의 노동력착취와 학대행위가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에는 2016년 5월 전북 남원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학대실태가 담겨진 CCTV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경북의 축사노예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현재에도 직·간접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어 장애인 인권 및 학대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인권 및 학대문제에 사회적 공분이 더욱 표출되고 종사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서는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으로 '이 법에 의하여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한의 봉사라는 단어가 전문성 제고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차지하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인권 및 학대상황은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인권존중 및 차별 없는 태도로 복지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임으로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NAP(National Action Plans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권고내용에는 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해 시설운영자에 대한 교육강화를 권고하고[1], 장애인복지법 제60조 4항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절차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 상담 및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 발생은 시설장의 경우 1차 위반 시에 시설장교체가 이루어지며, 중대한 성폭력 문제 발생은 1차 위반 시에도 시설폐쇄가 내려지는 등 보다 강경한 처분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2]. 이렇듯 시설장에 의한 이용자에 대한 인권문제발생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이용자에 대한 인권문제발생에 대해서도 시설장에게 책임을 묻고 행정처분(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을 내린다는 것은 시설장이 시설 내 인권상황에 대해 영향력과 책임성이 중대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생활은 시설 내의 지침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시설은 이용자를 보호해야하는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운영자가 이용인의 현재 인권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인권옹호에 대한 최우선적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인권인식이나 이용자의 법적권리를 기반으로 한 인권실행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이용자, 종사자, 정책연구이며, 대체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실태와 지적장애인 투표권 등 특정 법적권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3-6], 2010년 초반부터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인식, 인권업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딜레마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인권인식을 묻는 연구[19]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7-12][18].

김미옥 외[13]는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가 거주시설의 장애인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거주시설 현장에서의 인권실천적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권유형과 그에 따른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거주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인권보장 내용을 연결하였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시각적으로 분석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분석 방

법인 IPA분석방법을 통해 시설장의 인권인식 정도와 현재 시설 내에서의 실행정도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분석은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지침 매뉴얼 분류표와 김미옥 등[13]이 제시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유형 및 인권보장 내용을 토대로 하여 향후 시설의 인권해결 방향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경기, 경북, 전남지역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150개소를 선정하여 2016년 7월 말부터 9월초 사이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거주시설 시설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 후 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시설장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시 응답된 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음을 고지하였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와 추후 자료 활용 등에 대한 윤리적 보호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한 다음 설문지 작성은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33부로 회수율은 88.7%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중복 응답된 19부를 제외한 11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남자 57.0%, 여자 43.0%로 나타났고, 학력은 대학원졸업 56.1%, 대학졸업(2년제포함) 41.2%, 고졸이하 2.6%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가 48.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3.7%, 60대 이상 21.1%, 30대 7.0%순으로 나타났다. 현 기관 근무경력은 최소 4개월, 최대 36년, 평균 10년 2개월이었으며, 사회복지 총 경력은 최소 6개월, 최대 40년, 평균 17년 1개월로 분석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자	65명	57.0%
	여자	49명	43.0%
학력	고졸이하	3명	2.6%
	대학졸업 (2년제포함)	47명	41.2%
	대학원졸업	64명	56.1%
연령	30대	8명	7.0%
	40대	27명	23.7%
	50대	55명	48.2%
	60대이상	24명	21.1%
현 기관 근무경력	최소: 4개월, 최대: 36년, 평균: 10년 2개월		
사회복지 총 경력	최소: 6개월, 최대: 40년, 평균: 17년 1개월		

2.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시각적 구분이 쉽고 사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활용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비용과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집중해야 하는 사업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4-16].

IPA분석방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의 중요도를 수직축(Y축), 실행도(P)를 수평축(X)축의 2차원의 도면상에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점점의 기준은 보통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임의적인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점점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14][17].



그림 1. 중요도-실행도 매트릭스

3. 분석방법

1) 측정도구 구성

본 연구의 설문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실태조사 지침 매뉴얼 분류표를 이용하여 영역별 인권영역을 [표 2]와 같이 구분하였다. 실태조사 분류표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위해 이용자 종사자용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용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경북, 전남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세부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자료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상황 점검지를 바탕으로 인권의 영역인 자유권, 생존권, 정치권/법·절차적 권리, 사회권의 상위 4영역과 하위 20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선정된 상위영역과 하위항목을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들과 전공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최종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중요도와 실행도 설문은 7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114명에 대한 인구나사회학적인 특성과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들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권 영역에 따른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t-검정은 최소 30명 이상의 대상이 필요하며, IPA는 유의도 검증이 아니므로 샘플사이즈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IPA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경험이 최소 15년 이상인 시설장 6명을 추천받았으며,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위해 2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III. 분석결과

1. 세부항목별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분석

1.1 자유권 영역

시설장을 대상으로 자유권 영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자유권의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의 차이 분

표 2. 영역별 프로그램 현황

상위영역	하위항목과 세부내용	세부내용
자유권	교제 및 결혼선택	거주인들이 이성친구와의 교제나 결혼선택
	자유로운 연락	자신이 원할 때 친구, 가족 등과의 자유로운 연락
	외출 및 외박허용	거주인이 원할 때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
	종교활동보장	운영재단의 종교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종교활동보장
	언어적 존중	거주인에 대한 일방적인 반말 사용 금지
생존권	목욕시 원하는 대상 도움	목욕(샤워)을 할 때 거주인이 원하는 대상의 도움
	거주공간 공개시 동의	거주인의 방 공개시 사전 동의
	체벌금지	거주인이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체벌통한 교정 금지
정치권/법·절차적 권리	병원진료	병원 진료시 거주인의 의사 반영정도
	간병인 지정	입원했을 때 간병인 지정 반영정도
	선거권보장	장애정도나 인지능력과 무관한 선거권 보장
	요구사항 처리	거주인의 불만사항, 하고 싶은 것 등 처리
사회권	인권침해시 조치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신고 등 조치
	현금과 통장관리	때로는 시설 측이 현금과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게 나음
	인권교육 강화	종사자와 거주인의 인권교육 강화
	시설경영방치 개선	원장과 경영자의 시설경영 방침 개선
	인권지킴이단 활성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활성화
	시설 감시체계강화	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체계 강화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	시설환경 개선과 재할 및 자립 프로그램 내실화
	시설소규모화와 탈시설	시설 규모 축소와 탈시설 프로그램 도입

석 모든 하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 < 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현장에서의 인권 실행도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교제 및 결혼선택의 경우 거주인들이 결혼을 원하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있는 경우나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주인 의사와 다르게 제한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거주 공간 공개 시 동의의 경우도 거주시설의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1인 단독으로 방을 사용하는 것 보다 여러 명의 이용자가 함께 생활 하는 곳이 많아 참여자의 실행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시설환경개선과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3. 자유권영역의 중요도-실행도 수준 차이분석

하위항목	중요도	실행도	t	P
교제 및 결혼선택	5.8319	4.6106	7.128	.000
자유로운 연락	6.6579	6.3947	3.047	.003
외출 및 외박허용	6.6195	6.2389	3.662	.000
종교활동보장	6.5929	6.1327	4.283	.000
언어적 존중	6.5929	6.2301	4.039	.000
목욕시 원하는대상 도움	6.4513	6.2478	2.200	.030
거주공간 공개시 동의	5.6518	5.2143	2.704	.008

1.2 생존권 영역

생존권영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의 차이분석에서 체벌금지, 병원진료, 간병인 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생존권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가 차이나는 것은 이용자들이 생존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아직 이용자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권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체벌금지의 경우 육체적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야겠지만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같이 거주하는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일시적 타임아웃 등의 조치를 체벌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불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처벌에 대한 기준과 지침강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생존권영역의 중요도-실행도 수준 차이분석

하위항목	중요도	실행도	t	P
체벌금지	6.3805	5.9204	4.118	.000
병원진료	6.4727	6.0909	4.182	.000
간병인 지정	6.5841	6.2301	4.298	.000

1.3 정치권/법·절차적 권리영역

정치권/법·절차적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의 차이분석에서 요구사항처리, 인권침해 시 조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표 5. 정치권/법·절차적 권리 영역의 중요도-실행도 수준 차이분석

하위항목	중요도	실행도	t	P
선거권보장	5.9018	5.7589	.864	.389
요구사항 처리	6.3243	5.8378	4.720	.000
인권침해시 조치	6.2018	5.5789	6.278	.000

정치권/법·절차적 권리의 중요도와 실행도가 차이나는 것은 아직은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권 보장은 선거관리위원회차원에서 지적장애인에 적합한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처리는 시설 내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거주시설 내에서 경미한 사안일 지라도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신고와 사후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관련기관에 징계절차를 밟게 되고,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등 현 시스템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관련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실행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4 사회권영역

사회권 영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사회권의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의 차이분석 모든 하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사회권 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가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권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러므로 관련내용의 지침을 강화하고 지침의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현장의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간다면 중요도와 실행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의 경우 중요도와 실행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 프로그램 도입이 향후 거주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는 하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보장되고 난 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거주시설이 소규모시설로 가려면 규모 축소와 종사자 감소, 운영비 축소 등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제반여건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탈시설화는 시설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태에서 자립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으로 보인다.

표 6. 사회권영역의 중요도-실행도 수준 차이분석

하위항목	중요도	실행도	t	P
현금과 통장관리	6.5351	6.3158	2.985	.003
인권교육 강화	6.6667	6.4474	2.985	.003
시설경영방침 개선	6.5664	6.1504	4.600	.000
인권지킴이단 활성화	6.4286	6.2232	1.991	.049
시설 감시체계강화	6.1062	5.7345	3.456	.001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	6.6053	6.0000	5.189	.000
시설소규모화와 탈시설	5.9009	5.2613	3.858	.000

2. 중요도와 실행도 IPA

2.1 상위영역에 대한 IPA 차이비교

프로그램 영역별 분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Y축으로 구성된 중요도와 X축으로 구성된 실행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 값을 평균값으로 도출하였다. Y(중요도)축의 기준 값은 6.336점이었으며, X(실행도)축의 기준 값은 5.92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 값을 토대로 1사분면(유지 강화 영역), 2사분면(중점개선 영역), 3사분면(장기개선 영역), 4사분면(과잉노력 영역)을 도출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4사분면에 해당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투입된 노력의 일부가 다른 평가 속성에 투입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사분면의 경우 “생존권”, “사회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현장에서 지속적인 유지 및 강화를 추진해야 할 영역으로 보이며, 2사분면의 경우 “자유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 속성에 대한 실행도에서는 낮게 평가되어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3사분면의 경우 “정치권/법·절차적 권리영역”이 포함되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태들의 속성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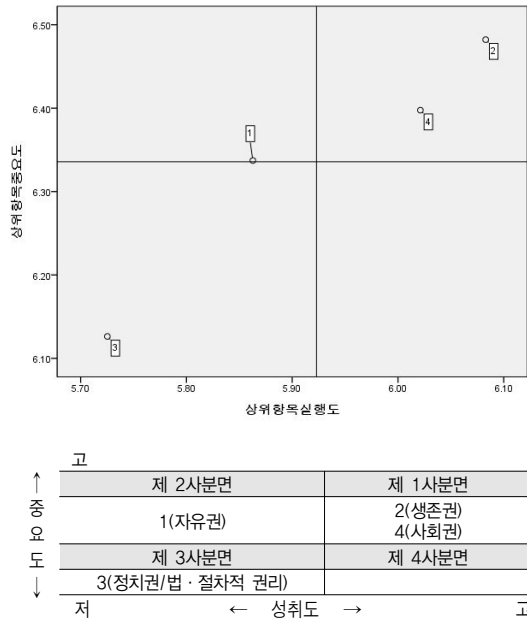


그림 2. 프로그램 구성영역별 실행격자 그래프

2.2 하위영역에 대한 IPA 차이비교

프로그램 하위항목별 분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Y축으로 구성된 중요도와 X축으로 구성된 실행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값을 도출하였다. Y축의 기준값은 6.348점이었으며, X축의 기준값은 5.931점으로 나타났다. 4분면상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1사분면(유지강화 영역), 2사분면(중점개선 영역), 3사분면(장기개선 영역), 4사분면(과잉노력 영역)의 영역별 평균값을 기준값을

도출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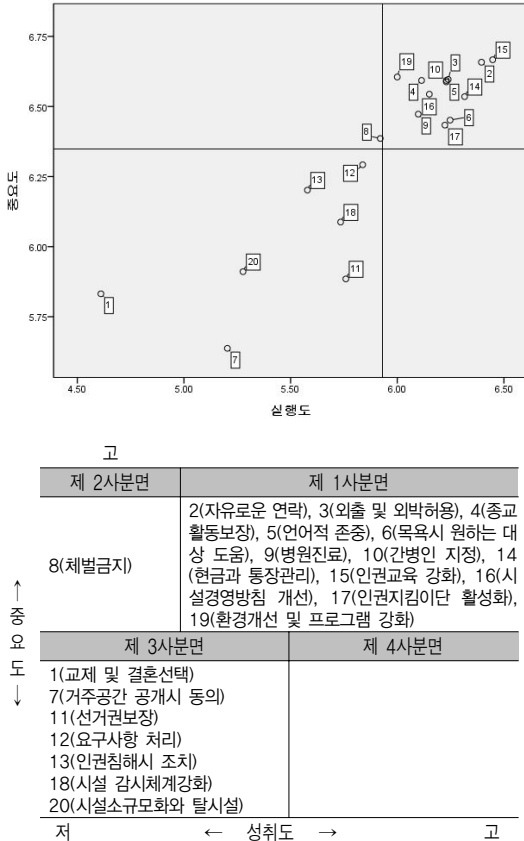


그림 3. 하위항목 프로그램 구성영역별 실행격차

하위항목별 중요도와 실행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1사분면의 경우 평가 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평가속성에 대한 실행도 또한 비교적 잘 이루어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2(자유로운 연락)”, “3(외출 및 외박허용)”, “4(종교활동보장)”, “5(언어적 존중)”, “6(목욕시 원하는 대상 도움)”, “9(병원진료)”, “10(간병인 지정)”, “14(현금과 통장관리)”, “15(인권교육 강화)”, “16(시설경영방침 개선)”, “17(인권지킴이단 활성화)”, “19(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역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속적인 유지 및 강화를 추진해야 할 영역으로 나타났다.

2사분면은 실행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이며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8(체벌금지)”가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 속성에 대한 실행도는 낮게 평가되어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3사분면의 경우 평가속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고 실행도 또한 낮아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평균이하를 나타내는 경우로 “1(교제 및 결혼선택)”, “7(거주 공간 공개 시 동의)”, “11(선거권보장)”, “12(요구사항 처리)”, “13(인권침해 시 조치)”, “18(시설 감시 체계강화)”, “20(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사분면의 경우 프로그램의 성격상 낮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야할 영역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태들의 속성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인권인식의 각 영역별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인권영역의 방향과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경북, 전남지역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거주시설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상황의 인식에 대한 중요도 전체 평균은 7점 기준으로 6.33점으로 높게 나타나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들이 인권상황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행도 인식수준은 5.92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 중요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인권인식에 대한 실행도가 높아질 때까지 향후 지속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인식의 자유권, 생존권, 정치권/법·절차적권리, 사회권영역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수준의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에서는 중요도 수준이 실행도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실행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에서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인권이라는 것이 아직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정착되지 못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관련 지침이 부족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이 아직 부족해 중요도와 실행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도 수준과 실행도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장에 맞는 지침의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권인식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에 대한 IPA분석을 통해 제1사분면에서 중요도와 실행도가 높게 나타난 '인권교육강화'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실시로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FGI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설에서는 의무적인 교육 이상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일 시설이 인권강화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부분 등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단체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모사업지원과 국고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금과 통장관리'는 시설종사자가 사전에 동의 구하고 통장의 행정적인 부분만을 대리해 주는 것으로, 금전관리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일부 이용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용자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통장관리 중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으로 인해 해당종사자는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되고, 당사자인 이용자의 금전관리능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용자의 개별적 금전관리능력을 기반으로 현금사용 현실화(자판기이용, 재래시장 물품구입 등)를 꾀하는 등 지출에 대한 개별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넷째, 실행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2사분면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중요성과 예산, 인력을 감안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벌금지' 항목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금지' 실행도가 평균 이하이지만 거의 평균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실행도를 조금만 높여도 그것에 대한 체감도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2사분면에 나타난 '체벌금지'의 실행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 접근방법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이용자의 부정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적 이해와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교육제공기반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접근방법은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이다. 즉 중증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로부터 분리하여 특화된 중증장애 인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기존 시설의 시스템적인 한계에서 발생하는 '체벌'을 통한 통제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평균이하를 나타내는 제3사분면 항목 "1(교제 및 결혼선택)", "11(선거권 보장)", "12(요구사항 처리)", "13(인권침해 시 조치)", "20(시설 소규모화와 탈시설)"은 시설자체의 인권문제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최근 고려되고 있는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과 성년후견제도의 보완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권 보장은 FGI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인 거주시설의 경우 선거에 대한 개념부족과 더불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여 투표하기가 어렵고 거주시설에서 개선하기도 힘들어 중요도와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강화를 촉구하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체의사결정제도에서 지원의사결정제도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20]. 따라서 제3사분면의 인권상황 인식의 중요도와 실행도가 낮다는

것을 시설장의 인권인식 결여와 실행부족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법적·제도적 보완노력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가와 실행 주체들(법률가, 행정가, 사회복지사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인의 법적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노력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경기, 경북, 전남 지역의 시설장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타 지역뿐 아니라 시설장만이 아닌 인권교육 담당자나 인권지킴이단 또는 인권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IPA분석의 특성상 사분위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이나 장애유형에 따른 거주시설의 차이, 시설장들의 역량차이와 같은 특성변인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인식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가인권위원회,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p.15, 2016.
 [2]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
 [3] 백종만, "사회복지시설수용시설 수용자의 인권실태," 국회인권포럼, pp.7-21, 1998.
 [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5.
 [5] 임성택,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제28권, pp.7-59, 2012.

[6] 김진우, "지적장애인 투표권부여 및 행사 관련 쟁점 연구,"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 제1권, 제1호, pp.345-367, 2015.
 [7] 고명식,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8] 김경희, 김미옥,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사건 해결과정에서의 딜레마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9권, pp.235-252, 2012.
 [9] 박경수, 장혜경, "장애인거주시설 실천가의 인권 딜레마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제2권, pp.249-272, 2013.
 [10] 변경희,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11] 송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지적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2] 김선주, "장애인시설종사자의 인권수행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탐색적 연구-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771-781, 2016.
 [13] 김미옥, 정진경, 김희성, 최영식, 윤덕찬,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2006.
 [14] J. A. Martilla and J. C.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41, No.1, pp.1-13, 1977.
 [15] 최기중, 박상현, "IPA를 이용한 관광지 평가: 산정호수 사례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0권, 제1호, pp.275-289, 2001.
 [16] 이성대, 강경화, 염동문,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상남도지역 교육복지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제41권, pp.133-157, 2015.
 [17] H. Oh, "Revisi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Vol.22, No.6,

pp.617-627, 2001.

[18] 김진연, 김영춘, “장애인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인식, 사회적지지, 사회통합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620-631, 2016.

[19] 오윤수, 정현태, 이성대,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인식유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pp.285-297, 2014.

[20] 엽형국, “장애인 법적 능력과 법 앞의 평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pp.83-92, 2016.

저 자 소 개

김 선 주(Sunjoo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2012년 2월 : 아미정신건강센터 원장

▪ 2009년 2월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3월 ~ 2016년 1월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6년 2월 ~ 현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장

<관심분야> : 정신보건, 사례관리, 상담기법, 장애인 인권